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 D-14 “우리도 편다”

‘설원 대축제’ 내일 광파르



3·1절 전국마라톤대회에 출전하는 광주시 동구청 직원들이 구청 앞 광장에서 선전을 다짐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인원기자 ahj@kwangju.co.kr

동계체전 서울·용평·부산서 열전 4일...광주 9위·전남 7위 목표

전남 바이애슬론 여일반 사전경기서 첫 금 ‘선물’

‘눈과 얼음의 축제’ 제89회 전국 동계체육대회가 오는 19일 강원도 용평에서 개막식을 갖고 4일간의 열전에 돌입한다. 서울, 강원도, 부산에서 열리는 이번 동계체전에는 15개 시·도에서 총 3천381명(인원 1천091명, 선수 2천290명)이 참가 규모면에서 역대 최고다.



17일 강원도 알펜시아리조트에서 열린 제89회 동계체전 사전경기 바이애슬론 여자일반부에서 금메달을 따낸 전남 김상욱 감독, 문지희, 윤혜운, 조인희 선수(왼쪽부터).

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광주는 지난해 은메달을 따냈던 김인배(상무교)가 남고 빙상에서 금빛 질주가 예상돼 체면치레를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남은 아이스하키를 제외한 스키, 바이애슬론, 컬링, 빙상등 4개 종목에 190명(선수 124명, 임원 66명)의 선수단이 출전. 금, 은, 3, 4등을 따내 지난해와 같은 종합7위를 수상한다는 계획이다. 전남은 특히 문지희(전남일반)가 바이애슬론 스프린트와 개인(15km)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후 계주(6km)에서 조인희, 윤혜운과 조를 이뤄 금메달 3개를 따낼것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문지희는 스키 크로스컨트리 프

“아시아 문화 중심으로 도약 동구 염원 담아 끝없는 질주”

■ 광주시 동구청

“아시아의 중심, 문화의 중심으로 도약하는 동구의 염원을 담아 한걸음 한걸음 내딛겠습니다.” 광주시 동구청 27명 참가자의 각오다. 이번 대회 폴코스에서 출전하는 경제와 신대중(38·기능 9급)를 비롯, 하프코스에 2명, 나머지는 5km에 참가신청을 했다. 동구청은 광주시내 구청 가운데 유일하게 마라톤 동호회가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친목과 건강을 위해 개인적으로 마라톤을 즐기고 있는 직원만 10여명을 중심으로 3·1절 마라톤 대회를 준비하면서 동호회 창립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번 참가 계기 동호회 창립 계획” 동구청 마라톤 애호가들의 맹렬적인 교통과 박종하(51·행정 6급) 계장은 지난해 3·1절 마라톤 대회 하프코스에 출전, 1시간 45분을 기록한 것이 최고기록이다. 평소 등산으로 다져진 체력을 바탕으로 꾸준한 훈련을 하고 있는 그는 이번 대회에서 1시간 30분대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는 “마라톤 경력은 3년밖에 되지 않지만 아마추어 마라톤러들의 꿈인 ‘서브쓰리’(SUB3· 마라톤 폴코스를 3시간 내에 완주하는 것)를 꿈꾸며 실력을 쌓아가고 있다”며 “이번 대회를 계기

로 동구청 내 마라톤 동호회 모임에 대한 제안을 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계장과 같은 과에서 근무하는 박대선(46·행정 6급) 계장도 하프코스에 도전한다.

김선정씨 ‘둘째 아이 꿈’ 안고 도전

건강을 지키기 위해 2년 전에 마라톤에 입문한 그는 “3·1절 마라톤 대회에서 1시간45분대 진입을 위해 차곡차곡 준비를 하고 있다”며 “마라톤은 자신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까지 지켜 줄 수 있는 운동으로 다른 직원들도 함께 뛰었으면 좋겠다”고 마라톤 전도사 역할을 자처했다. 폴코스에서 출전하는 신대중씨는 울트라 마라톤 1회 완주, 폴코스 완주만 해도 10여 회에 이를 정도로 체력과 경기운영 기술이 우수한 선수지만 기록에 연연하지 않는다. 건강을 위해 달리고 있지만 즐거움이 동반되지 않는 운동은 효용이 없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5km 코스에 나서는 회계정보과 김선정(33·기능 9급)씨는 ‘둘째 아이를 갖겠다’는 소망을 안고 이번 대회에 나섰다. 건강 때문에 고민하던 중 마라톤 마니아인 김규형(30·기능 10급)의 제안으로 운동을 시작했다. 김씨는 “운동을 시작하면서 건강도 좋아지고 글썽도 좋아졌다”며 “달 천하(3)의 건강과 가족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인원기자 ahj@kwangju.co.kr

이신바예바 장대 높이뛰기 실내 세계新

폴블터스타스대회서 4m95

‘미녀새’ 엘레나 이신바예바(26·러시아)가 육상 여자 장대높이뛰기에서 실내 세계기록을 또 갈아치웠다. 이신바예바는 17일(이하 한국시간) 우크라이나 도네츠크에서 열린 폴블터스타스대회에서 4m95에 걸린 바를 훌쩍 뛰어넘어 자신이 1년 전 같은 대회에

서 세웠던 종전 실내 세계기록(4m93)을 2cm 끌어올렸다. 이신바예바는 4m67과 4m77을 가뿐히 넘어 1위를 확정짓고 4m87에선 3차 시기까지 가며 고전했다. 이어 4m94를 두 번 실패하자 그는 오히려 바를 1cm 올리는 도박을 감행한 뒤 4m95에서 특유의 폭발적인 점프와 유연한 공중동작으로 바를 건드리지 않고 내려왔다.



17일 (월) ▲2008 PGA 노던 트러스트 오픈 FR (06:00·SBS골프) ▲2008 군산시장기 우수교교 초청야구

日 아사다 4대륙 피겨 싱글 우승

트리플 악셀(공중 3회전반)의 ‘필살기’를 앞세운 아사다 마오(18·일본)가 퀘드러플(공중 4회전)에 실패한 ‘일본 라이벌’ 안도 미키(21)를 제치고 2008 국제빙상경기연맹(ISU) 4대륙 피겨선수권대회 여자 싱글 우승 메달을 차지했다. 또 한국을 대표해서 나선 김나영(18·연수)은 4위에 오르면서 내달 세계피겨선수권대회를 앞두고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아사다는 지난 16일 고양시 덕양구 어울림누리 얼음마루 빙상장에서 치러진 대회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치러진 대회 악셀을 포함해 7개의 점프 과제를 실수 없이 처리하면서 132.31점을 얻어 전날 쇼트프로그램(60.94점)을 합쳐 총점 193.25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쇼트프로그램 3위 조아나 로세트(22·캐나다)는 프리스케이팅에서 두 차례나 점프 착지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였지만 자신의 최고 점수(119.35점)를 경신한 119.50점을 받아 총점 179.54점으로 안도를 누르고 준우승을 차지했다.

Real estate advertisements including '대인동삼일부동산', '금보부동산건설', '상무랜드공인중개사', '대지공인중개사', '에이플러스공인중개사', and '한일지도판매(주)'. Each ad lists various properties for sale or rent with details like location, size, and price.